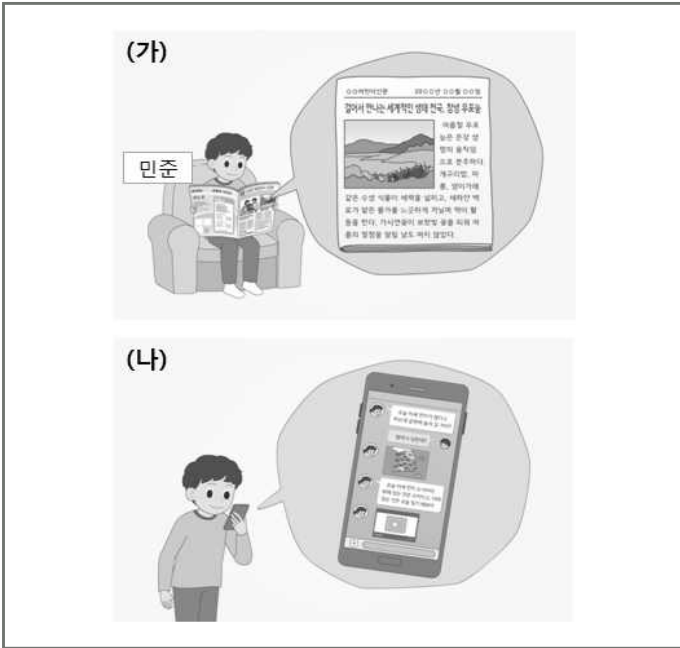


※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3)



1 민준이가 읽거나 본 매체 자료를 두 가지 고르시오.
..... ()

- ① 책
- ② 신문
- ③ 잡지
- ④ 연속극
- ⑤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2 매체 자료 (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민준이가 집중해서 읽어야 할 부분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 ㉠ 글만 자세히 읽어 본다.
- ㉡ 사진만 자세히 살펴본다.
- ㉢ 사진과 글을 모두 살펴본다.

()

3 그림 (나)에서 민준이가 휴대 전화를 이용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 ① 영화를 보고 있다.
- ② 음악을 듣고 있다.
- ③ 전자책을 읽고 있다.
- ④ 그림을 그리고 있다.
- ⑤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6)

(가) 전학 온 서영이는 성격이 좋아 금세 친구들과 잘 어울렸다. 그런 서영이가 부러운 미라는 핑공 카페에 ‘흑설 공주’라는 계정으로 서영이와 관련한 거짓 글을 올린다. 아이들은 서영이가 거짓으로 부모님 이야기를 한다는 ‘흑설 공주’의 글을 읽고 수군대기 시작한다.

(나) 핑공 카페에 들어와 서영이가 올린 글을 읽은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 의견을 달아 놓았다. 그중에는 서영이를 두둔하는 선פל도 있었지만, 흑설 공주를 비방하는 악플과 함께 여전히 흑설 공주 편을 드는 아이들도 있었다.

사냥꾼: 도대체 누구 말이 진실인가?

빨간 풍선: 민서영이 흑설 공주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다. 지금이라도 민서영이 자기 입장을 밝혀 주어 속 시원하다.

은하수: 내가 보기에 흑설 공주가 너무 심하다.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는 데 왜 그런 거짓 글을 실었을까?

거지 왕자: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두 사람만의 갈등이 있는 건 아닐까?

하이드: 흑설 공주의 글을 보면 민서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 어쩌면 흑설 공주의 글이 사실이 아닐까?

기쁜 나무: 아무리 흑설 공주의 글이 사실이라고 해도 인터넷에 남의 사생활을 퍼뜨리는 건 나쁜 것이다.

삐삐: 그럼 흑설 공주와 민서영, 둘 중 한 사람은 우릴 속이고 있는 거네?

허수아비: 맞다. 흑설 공주가 근거도 없이 얼토당토 않은 글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민서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솔로몬: 이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명탐정은 누구인가?

아이들의 댓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4 서영이가 올린 글을 읽고 아이들의 의견이 서로 달랐던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

- ① 서로 읽은 글이 다르기 때문에
- ② 민서영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 ③ 진실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 ④ 서영이가 글을 어렵게 썼기 때문에
- ⑤ 흑설 공주의 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 5 은하수가 흑설 공주의 행동이 너무 심하다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 ②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 ③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 ④ 민서영이 사실이 아니라는 데 거짓 글을 실었기 때문에
 - ⑤ 흑설 공주가 친구들을 듣기 싫어하는 별명으로 불렀기 때문에

- 6 이 글에 나온 인물들의 모습을 현실 세계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여 쓰시오.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9)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편이 반론을 펴고, 반대편에서 찬성편의 반론을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편: 반대편은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이 올바르지 않은 까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첫 번째 자료로 제시한 설문 조사 결과는 다른 학교를 조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의 상황과 설문 조사 결과가 반드시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우리 학교 사정을 고려해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편: 네, 저희가 다른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를 활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는 점을 보여드리려는 자료입니다. 여기 우리 학교 선생님을 면담한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봉사 정신이 뛰어나거나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생보다는 인기가 많은 학생이 학급 임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학생 대표로서의 학급 임원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 7 찬성편에서 반대편의 의견에 대해 반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 ①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많다.
 - ②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결과와 반대이다.
 - ③ 인기가 많은 학생이 학급 임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 ④ 학생 대표로서의 학급 임원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
 - ⑤ 반대편에서 제시한 설문 조사 결과는 다른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이다.

- 8 ㉠과 같이 질문을 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표하시오.
- (1) 상대방의 주장을 요약해 반론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
 - (2) 상대방의 주장에 찬성하고 싶은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
 - (3) 상대방이 제시한 주장과 근거 자료가 타당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

- 9 우리 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떠올려보고 친구들과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한 가지 쓰시오.
-
-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12)

시장에 간 우리 고모
물건 사고 아주머니가 돌려주는
거스름돈,
꼭 세어 보아요

은행에 간 고모
현금 지급기가
‘달깍’ 내미는 돈
세어 보지도 않고
지갑에 얼른 넣는 거 있죠?

고모도 참

- 10 말하는 이는 고모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하시오.
- (1)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 (2)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 11 이 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
- ① 기계를 믿지 못하는 세상
 - ②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세상
 - ③ 사람보다 기계를 더 믿는 세상
 - ④ 인공 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
 - ⑤ 사람들이 자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세상

12 이 시를 읽고 토론을 한다면 토론 주제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은 왜 일어날까?
- ② 현금 지급기를 계속 사용해도 될까?
- ③ 시장에 갔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 ④ 인공 지능 시대에 사람의 가치는 낮아질 것인가?
- ⑤ 기계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3 밑줄 친 ‘먹다’와 비슷한 뜻으로 쓰인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자.
- ② 물을 먹어서 옷이 무거워졌다.
- ③ 빵이 상한 것 같으니 먹지 마라.
- ④ 굳게 먹은 마음 변하지 말고 매일 운동하자.
- ⑤ 핸드볼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한 골을 먹었다.

14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뜻을 모르는 낱말이 몇 글자인지 확인한다.
- ② 뜻을 모르는 낱말의 앞뒤 상황을 살펴본다.
- ③ 뜻을 모르는 낱말을 빼고 문장을 읽어 본다.
- ④ 해당 낱말과 발음이 비슷한 낱말의 뜻으로 생각한다.
- ⑤ 해당 낱말의 뜻과 비슷하거나 반대인 낱말을 대신 넣어본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17)

(가) 글쓰기반 수업 첫날, 켈러 선생님은 아무 ㉠기척도 없이 교실로 들어와 책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엎포부터 놓았다.

“오늘부터,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훈련시켜서 진짜 멋진 작가로 만들어 줄 생각이다. 정말 ㉢기적 같겠지? 하지만!”

켈러 선생님은 특유의 진한 미국 남부 지방 억양으로 말을 이어 나갔다.

“이 수업을 ㉣만만하게 생각했다면 지금 당장 저 문으로 나가도록. 보잘것없이 짧은 너희의 인생 경험으로는 상상도 못 할 정도로 힘들 테니까. 아마 이 수업을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나오겠지.”

어쩐지 켈러 선생님이 유독 나만 노려보는 것 같았다.

켈러 선생님은 허리를 꼴꼴이 펴고 똑바로 서 있어서 실체 키보다 더 커 보였다.

(나) 나는 우리 가족과 내 일상에 대해 쓴 ‘결작’을 읽어 내려갔다. 내가 우리 가족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켈러 선생님이 무척 감동하겠지?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달리, 켈러 선생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퍼트리샤, 너 지금 ‘사랑’이라는 낱말을 고양이에게도, 치마에도, 이웃에게도, 팬케이크에도……. 심지어 엄마에게도 사용하고 있어. 엄마에게 느끼는 감정과 팬케이크에 느끼는 감정이 똑같은 말이니? 낱말은 감정을 전해 주지. 하지만 낱말 하나하나가 가진 차이를 이해해야 해!”

15 글 (가)에서 켈러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쓰시오.

()

16 ㉠~㉣의 낱말 가운데에서 뜻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 ㉠ 기적: 누가 있는 줄을 알 만한 소리.
- ㉡ 엎포: 부드럽게 어르는 것.
- ㉢ 기적: 매일 일어나는 평범한 일.
- ㉣ 만만하게: 아주 어렵게.

()

17 글 (나)에서 켈러 선생님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낱말에 대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

- ① 어려운 낱말을 사용해야 한다.
- ② 같은 낱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③ 같은 낱말을 여러 번 사용해야 한다.
- ④ 낱말 하나하나가 가진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 ⑤ 낱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다양하게 써야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8~19)

식물이 특별한 기술을 바탕으로 잎을 피우는 이유는 햇빛과 그림자 문제 때문입니다. 위의 잎이 바로 아래 잎과 겹치면 위에 있는 잎의 그림자 때문에 아래 잎은 햇빛을 받지 못합니다. 식물은 햇빛을 보지 못하면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잎을 펼쳐야 햇빛을 잘 끌어모을까 고민합니다.

그럼 식물이 줄기에 어떤 모양으로 잎을 붙여 나가는지 그 기술을 알아보기로 할까요? 줄기에 차례대로 잎을 붙여 나가는 모양을 ‘잎차례’라고 합니다.

먼저, 줄기 마디마다 잎을 한 장씩 피우되 서로 어긋나게 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긋나기’라 합니다. 국수나무처럼 평행하게 어긋나기만 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해바라기처럼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려나면서 어긋나는 식물도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줄기 한 마디에 잎 두 장이 마주 보는 ‘마주나기’도 있습니다. 단풍나무나 화살나무는 잎 두 장이 사이좋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난 잎들이 마디마다 서로 어긋나지 않고 평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마디에 잎이 석 장 이상 돌려나는 잎차례가 있습니다. 이런 잎차례를 ‘돌려나기’라고 합니다. 갈퀴꼭두서니는 마디마다 잎이 여섯 장에서 여덟 장씩 돌려나기로 핏니다.

18 식물이 줄기에 차례대로 잎을 붙여 나가는 모양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글에서 찾아 쓰시오.

()

19 다음과 같은 기술로 잎을 붙여 나가는 식물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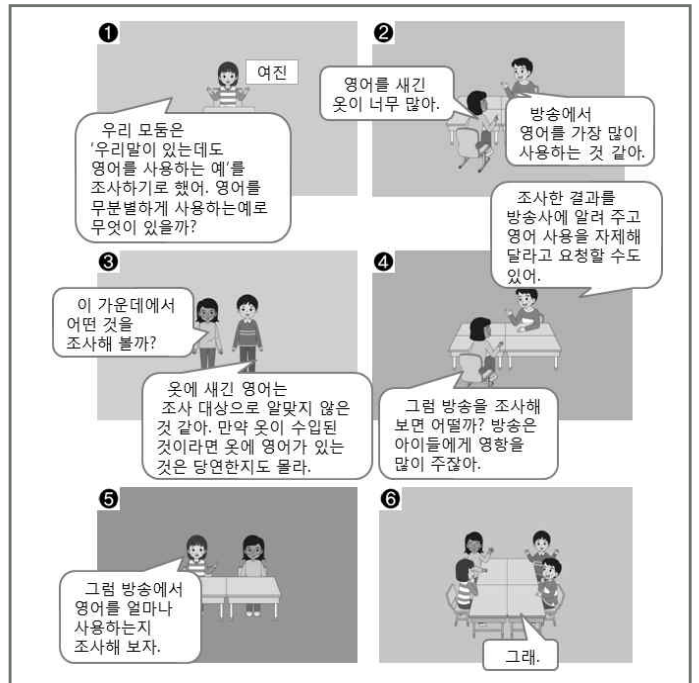
- | | | | | |
|-----|------|---|-----|--------|
| (1) | 어긋나기 | • | • ㉠ | 해바라기 |
| (2) | 마주나기 | • | • ㉡ | 단풍나무 |
| (3) | 돌려나기 | • | • ㉢ | 갈퀴꼭두서니 |

20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미연: 친구들이 영화의 생일 때 ‘생선’이라는 말을 썼어.
성훈: 우리 집 근처에는 ‘신선한 과일가게’라는 가게가 있어.
연수: 친구들이 고양이를 ‘야옹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

()

※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1~22)



21 여진이네 모둠의 조사 주제는 무엇인지 쓰시오.

22 ④에서 남자아이가 옷에 새긴 영어는 조사 대상으로 알맞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영어가 쓰인 옷이 많기 때문에
- ② 한글이 쓰인 옷이 많기 때문에
- ③ 한자어가 쓰인 옷이 많기 때문에
- ④ 영어가 쓰인 옷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 ⑤ 옷이 수입된 것이라면 옷에 영어가 있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기 때문에

